

“철새타령 그만, 대량 살처분 중단”

AI공동대책위, 17일 성명

조계종 사회부와 동물보호연대 등이 함께 구성된 조류독감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 바이러스 전파를 촉진시키는 현 축산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1천3백만 마리라는 사상 최대의 가금류 수를 살처분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해도 AI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AI 원인으로 철새주 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철새 이동시기 분석과 AI 발생시기상 오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 방역에 의미없는 비용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을 질타했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는 현재까지 가장 기간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대책위는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되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거시기 비롯되는 병원체들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공장식 축산시스템 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책위는 국회에 관련 입법 및 청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닭 가공업체 앞에서의 시위도 계획 중이다.

배현진 기자 hynus@hyunbul.com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무료로 즐기세요

7월 4일까지 이벤트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개시한다.

가장 먼저 올 여름 가족들이 함께 하면 좋을 ‘피겨라 행복씨앗’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아아, 생생, 여여, 당당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13개 사찰에서는 2주간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료 템플스테이는 오는 7월 4일까지 템플스테이 신청을 한 개인 참가자(4인 이하)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13개 사찰별 108명씩, 총 1,404명만이 템플스테이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행복여행수첩’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각 사찰별 선착순 500명까지 가능하며 수첩의 수량이 소진될 시 자동 종료된다.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만 제공되는 ‘행복여행수첩’은 별도의 이벤트 응모가 가능한 스티커북이 동봉돼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esta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사라진 광배가 버젓이 미술관에

“봉화 오전리 불상 광배

호암미술관 야외에 전시”

김태형·황평우 등 주장

6.25 전쟁 후 도난 추정

호암 미술관 반박

“사진 광배와 전혀 달라”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관장 홍라희)이 경북 봉화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암미술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태형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6월 16일 “경북 봉화군 오전리에 있었던 9세기 석조 광배가 용인 호암미술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돼 있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배는 불상의 뒤편에 자리하는 장식이다. 오전리 석조 광배는 높이 195cm로 통일신라 석조 광배로는 대형이다. 현재 오전리에는 광배는 없어진 채 경북도 유형문화재 154호인 ‘석불 좌상’의 몸통만 남아 있다.

황평우 소장은 “경북 봉화군 오전리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154호 석불 좌상’ 옆 바닥에 있던 것”이라며 “일제시대 사진을 보면 이 광배가 ‘석불 좌상’과 나란히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학예사와 황평우 소장이 공개한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자료의 오전리 불상 및 광배(사진 왼쪽)와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광배(사진 오른쪽)

사진은 일제시대 수덕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 장안사 사성전 등의 수리공사를 감독한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1882~1950)가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1994년 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자료>에 ‘부석사 석불좌상/경북 영풍/통일신라(9세기)/07021-97’에 실려 있다.

김 학예사와 황 소장은 “현지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광배는 ‘석불 좌상’ 불두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단으로 반출된 광배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학예사와 황 소장은 “문양과 크기, 양식 등을 비교하면 두 광배는 동일하다”며

“미술관 측의 불두 소장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암미술관 측은 소장 광배는 사진의 광배와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암미술관 관계자들은 “사진 속 광배의 두 광은 타원형인데 호암미술관 광배는 완전한 원형이며 사진 속 광배는 하단 오른쪽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데 호암미술관 광배는 파손 부위나 수리한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006년에는 현등사와 조계종이 리움미술관이 소장 중인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에 대해 도난문화재임을 들어 반환 요청을 해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리움은 선의취득 조항으로 승소했으나 불교계의 반발에 되돌려 준바 있다. **노덕현 기자**

무개념 총리 후보에 불교계 뿔났다

조계종 중앙총회, 불교 단체 등 잇달아 기자회견…“지명 철회하라”

‘위안부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불교계 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단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했다.

중앙총회 의장단은 “문창극 후보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역사적의식이 부재하며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 반민족적 식민주의에 매몰돼 있다”며 “문 후보자 발언을 접한 많은 국민이 100년 전 을사늑약과 국권침탈을 주도했던 친일매국노 이완용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발언을 동의 묵인하는 것

과 다르지 않으며 취임식에서 온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후)는 6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리 후보의 지명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 운영을 요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조계사 일주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공직자들의 지명을 철회할 것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개혁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해 정의평화불교연대,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회단, 민주주의 불자회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거부하는 문 후보자의 편향된 사고 구조를 규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 및 포교 단체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역사관과 반국민적 정서를 가진 문 총리 후보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16일 청와대 불자회장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송광용 신임 교육문화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잘 알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정혜숙·이은 기자

<관련기사 31면>

선묘·채색 구분 허문 조선 희귀불화 발견

정우택 관장, 日미술관서… 16세기 말 민간 제작 추정

일본 네즈 미술관에서 발견된 지장보살 설법 18지옥도. 지장보살이 표현된 상단은 선묘, 지옥에서 묘사된 하단은 채색 기법으로 그려졌다.

일본 도쿄에서 조선 전기 희귀 불화가 발견됐다. 이 불화 그동안 불화를 구현한 묘법의 구분을 허문 작품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네즈(根津)미술관에서 이 불화를 확인한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지장보살설법, 18지옥도’라며 “선묘와 채색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현해 채색불화와 선묘불화의 묘법 구분을 허문 것으로 일본과 중국 불화에서도 전무한 사례 다진무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 관장은 “교토 지온인(知恩院) 사찰에 1575~77년 제작된 같은 도상의 조선 불화가 소장돼 있다”며 “백토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죽은 백성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민간에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관장은 또 “이번 불화의 발견으로 그동안 막연히 중국불화로 추정돼 온 오사카 다이후쿠지(大福寺) ‘지장보살설법, 18지옥도’도 조선불화로 볼 수 있게 됐다.”



일본 도쿄 네즈(根津)미술관에서 발견된 16세기말 조선 불화.

다”고 말했다.

1596년 제작된 오사카 다이후쿠지(大福寺) ‘지장보살설법, 18지옥도’는 보살들의 형상과 표현법이 조선불화의 양식을 띠고 있음에도 채색에서 연꽃빛이 강한 색깔의 차이로 ‘명나라 혹은 조선 불화로 추정된다’며 판단이 미뤄져 왔다.

한편, 이번 불화는 네즈 미술관이 불화 특별전 준비 차 수장고를 정리하다 발견했다. 정 관장은 6월 21일 동국대미술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이 불화를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2020년 불교여성광장 건립 발원

불교여성개발원, 13일 자비나눔행사… 전원주 홍보대사 위촉

불교계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이 6월 13일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마음 모아 함께”를 주제로 연 이번 바자회에서는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성철 스님의 서화와 백남준, 천경자 작가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선재스님이 후원한 연일밭 등 먹거리마당과 기증품 판매가 진행됐다.

정경연 원장은 인사에서 “2011년 불교여성광장 건립 발원 이후 마음을 모아 현재 교육관을 마련했다”며 “2020년까지 108억원을 모으며 여성불자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제3차 여성불자 108인회 회원인 탤런트 전원주 씨를 불교여성개발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서울 조계사 인근에 건평 1천평의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발원, 2011년 8월 입재식을 갖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108억원 기금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후원자 1만명을 모집해 1인당 108만원씩 3년간 후원하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539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약 9억 3천여만원을 모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은 6월 13일 제3차 여성불자 108인회 회원인 탤런트 전원주 씨를 불교여성개발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원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